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1937년의 '전라기행'을 중심으로- 개최

- 6.18.~8.2.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상징적인 인물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활동을 소개
- 야나기 무네요시의 전국 공예 필드워크 자료를 현황 조사 결과와 소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공익재단법인 일본민예관(관장 후카사와 나오토, 이하 민예관)과 함께 6월 18일(수)부터 8월 2일(토)까지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 1937년의 '전라기행'을 중심으로' 특별기획전을 문화원 1층 갤러리美에서 개최한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1937년 도예가 가와이 간지로(河井寬次郎, 1890 - 1966), 하마다 쇼지(濱田庄司, 1894-1978) 등과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의 공예와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필드 워크를 진행하여 당시의 공예와 장인들을 기려 후년에는 야나기 무네요시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의 공예'(1947년)란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이번 전시회는 야나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일본 민예관 소장의 귀중한 1930년대 한국공예, 가와이 칸지로, 하마다 쇼지의 작품 외에도 야나기 무네요시의 육필 원고와 관련 사진 등을 소개하며, 아울러 도문첸상을 수상한 사진가 후지모토 다쿠미가 1970년부터 촬영해온 야나기 일행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진들도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한일 연구가들의 국제 심포지엄과 사진가 후지모토 다쿠미의 강연회를 개최하여 야나기 일행이 접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전통 공예의 매력을 소개한다.

문화원 박영혜 원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에 한일 교류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동료들과 진행한 한국 전국의 필드워크를 문화원에서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전시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 행사개요

- (행 사 명)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키의 마음과 시선’ - 1937년의 ‘전라기행’을 중심으로 -
- (일 시) '25. 6. 18.(수) ~ 8. 2.(토)
- (장 소) 주일한국문화원(일본 도쿄)
- (주 최) 주일한국문화원, 공익재단법인 일본민예관
- (후 원) 호쿠토시, 호쿠토시교육위원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학술협력)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예술학과 공예사연구실
- (전시협력) 후지모토 다쿠미
- (특별협찬)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재단
- (주요내용) 일본민예관이 소장한 1930년대의 한국공예, 가와이 간지로, 하마다 쇼지의 작품, 한국 전승공예품 작품 등 전시
- (심포지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성에 의한 조사 성과 발표
  - 일시 : '25. 6. 28.(토) 13:00~17:00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2층)
  - 내용 : 『지금도 이어지는 조선의 공예』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공예의 현황이나 미래에 대해 한일 연구자들이 발표
  - 패널리스트 : 가타야마 마비(도쿄예술대학 교수), 다시로 유이치로(도쿄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기획의원), 윤지향(나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황경희(사상생활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강연회) 야나기 무네키 일행이 거친 한국의 길을 걷다
  - 일시 : '25. 7. 11.(금) 19:00~20:30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2층)
  - 내용 : 1970년부터 한국의 풍토를 촬영해온 후지모토 다쿠미 사진가가 야나기 일행이 다녔던 장소들을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되집어 본다.

□ 행사포스터



韓日国交正常化60年記念展  
「今に続く柳宗悦の心と眼」—1937年の「全羅紀行」をめぐって

柳宗悦・河井寛次郎・濱田庄司、1930年代の韓国工芸に出会う

2025年6月18日(水)ー8月2日(土)  
駐日韓国大使館 韓国文化院 ギャラリーMI (1F)

休館日 | 祝日(7月23日)及び日曜日  
開館時間 | 10:00-17:00 (入場は16:30まで) 観覧無料  
HP | <https://www.koreanculture.jp/>

主催 | 駐日韓国大使館 韓国文化院、公益財団法人 日本民藝館  
後援 | 北州市、北州市教育委員会、国外所在文化遺産財団  
学術協力 | 東京藝術大学芸術学部芸術学科学工芸史研究室  
展示協力 | 藤本巧  
特別協賛 | 公益財団法人 国際文化会館

  駐日韓国文化院  
Japan Cultural Center for Korea  
日本民藝館

撮影 | 藤本巧 1997年